

# 칠레, 구리 생산 노동자 파업 가시화...공급 우려에 구리 가격 상승

칠레 Mining.com, Reuters, Bloomberg

2022/06/23



## □ 칠레 국영 광산 기업 코델코의 노조가 2022년 6월 22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음.

- 칠레 국영 광산 기업 코델코(Codelco) 노조가 2022년 6월 22일에 전국 총파업을 시작했음.
- 아마도르 판토야(Amador Pantoja) 칠레 구리노동자연합(FTC, Federacion de Trabajadores del Cobre) 회장은 파업 시작을 알리면서, 노조는 얼마 전 유독 가스 배출 문제를 일으킨 용광로(smelter)의 수리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노조의 의견을 묵살했고, 이에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음.
- 칠레 구리노동자연합은 코델코 이사회가 유독 가스 배출로 가동이 중단된 용광로 설비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음.

## □ 반면 칠레 정부와 코델코는 유독 가스 배출 문제를 일으킨 용광로를 영구 폐쇄할 방침임.

- 노조는 용광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사측이 설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정부와 코델코는 해당 용광로를 가동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.
- 노조는 유독 가스 배출 방지 장치를 갖추기 위해서는 약 5,300만 달러(한화 약 690억 원)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- 그러나 정부는 그 정도의 투자를 할 이유는 없으며 해당 용광로 가동 중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음.

## □ 칠레 코델코 노조가 파업을 경고하자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되면서 국제 구리 가격이 상승했음.

- 칠레는 세계 최대 구리 매장국가 중 하나이며, 매년 가장 많은 구리를 수출하고 있음. 국영 광산 기업 코델코는 이러한 칠레 구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핵심 업체임.
- 코델코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구리 생산량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었고, 동시에 국제 구리 가격도 상승했음.